

국민학교 양호실 이용 아동의 동통 Complaint에 관한 考察

지영애

〈경기 김포 양곡국교 양호교사〉

I. 序論

1. 研究의 背景 및 必要性

프로렌스 나이팅게일(1820. 5. 12~1910. 9. 13)은 看護事業에 대하여 “간호사업은 정밀한 예술 중 가장 정밀한 예술이다.”¹⁾라고 말했다.

오늘날 간호사업은 한 인간을 간호하는데 있어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정신에 바탕을 두고 예술적이고 과학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지극히 세분화되어 있어 간호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며 일하고 있다.

그 중의 한 분야인 學校保健 분야, 특히 국민학교 아동들에 대한 保健看護問題인데, 실제 학교에 근무하면서 접하게 되는 문제 중 가장 많은 것이 아동들의 동통에 대한 complaint이며, 우리가 간호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 있다 해도 특별히 학령기 아동의 문제에 대한 지식과 연구가 없이는 이를 위한 최상의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전인간호를 행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2. 研究의 目的

아동의 건강 상태 여부는 곧 그 나라의 문명과 문화, 그리고 사회복지률 결정하는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²⁾

이러한 아동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學校保健

분야, 특히 학교 양호실에서 양호교사의 역할이 바로 그 학교 아동의 장래의 문제뿐 아니라 나아가서 그 나라의 운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學校養護室을 이용하는 아동의 문제는 곧 전체 아동들의 건강문제요 또한 우리 전 국민의 건강문제이기도 하다. 이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조사·연구하여 그에 합당한 과학적이고 전인적인 간호를 행함으로써 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그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3. 研究의 制限點

연구의 대상이 광범위하지 못하며, 경기도의 한郡에 있는 면소재지의 학교로서 도시학교도 농촌·벽촌학교도 아닌 농촌에 가까운 한 학교를 그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기간은 '85년 3월부터 '86년 2월까지 1년 중 양호실을 이용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 연구에 상기 제한점이 있음을 밝힌다.

4. 研究의 對象 및 方法

경기도 김포군에 있는 ○○국민학교(25학급) 아동(재적 1,050명) 중 지난 '85년 중 양호실을 이용한 아동 575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으며, 본교에 약 3년간 근무하는 중 학부모 면담, 아동 상담

1) 홍 옥순 편 간호학(학리와 실재),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1984, 1면.

2) 하영수, 산소아과 간호학, 수문사 1975, 355면.

등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교 내외에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양호실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병원으로 이송된 아동과 담임교사가 직접 집으로 보낸 아동, 질병으로 인하여 결석한 아동은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II. Complaint의 区分

1. complaint의 種類와 兒童數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外傷이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복통이나 두통, 감기 등을 호소하는 아동들이 많았다.

학령기 아동은 취학과 함께 아동의 활동이 광범위해지고 활발해짐에 따라 事故發生率도 증가하고, 학교 내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가벼운 외상이지만 성장 발달 및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필요량에 비해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지 못할 때 영양 부족으로 저항력이 약해지고, 감기나 기타 질병에易환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2. 性別에 따른 Complaint 比較

性別에 따라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것이 복통이다. 외상은 단연 개구장이 남자 아이들에게서 많고, 복통은 여아에게 약간 많은 경향을 볼 수 있다. 식체는 오히려 남아에게서 두 배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뇌신경 또한 남아에게서 더 많은 경향을 볼 수 있다.

3. 季節에 따른 complaint 比較

학년 초(3, 4월)나 추운 겨울(12, 1월)에는 활동량이 적어짐으로 인해 외상이 눈에 띄게 줄었으나 5, 6월경, 9, 10월경에는 학급 친구들도 사거게 되고,

학년 초의 긴장도 풀리게 되며, 기후조건도 뛰어 놀기에 좋은 관계로 외상이 많은 경향을 볼 수 있다.

감기는 환절기(3·4·11월)에 많았으며, 두통 또한 감기에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환절기에 많으나 기타 전염성 질환에도 두통이 많이 있음을 감안할 때 하절기에도 두통 호소가 많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복통은 음식물이 상하기 쉽고 식중독이 많은 고온 다습의 하절기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III. Complaint을 일으키는 健康問題의 소인

외상을 제외한 질병의 원인은 한 마디로 병원균의 침입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 모든 원인들을 발생시키는 조건이 바로 질병으로 인한 complaint을 일으키는 소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학령기 아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태도이다. 어린이가 질병에 가장 잘 걸리는 위험한 시기인 학령 전기를 지나면 부모는 자연히 자녀에 대한 주의나 배려를 덜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가 안중에서 벗어나 행동하고 있어도 염려를 하지 않게 된다.

또한, 아동의 성격과 태도도 중요한데, 장난이 심한 개구장이일 경우 외상의 확률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보겠다.

家庭環境 또한 중요하며, 가난한 가정의 경우 외상이 생겨도 잘 치료받지 못하고, 어떤 질병의 초기 증상이 나타도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상태가 심해져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파괴가정의 경우 부모가 아동들에 대해 무관심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상 문제점을 해결해 주지 못하며, 신체와 의복이 불결하여 전염병이나 기타 질병에 이환되는 확률이 많다.

이혼 등으로 인하여 한쪽 부모의 역할 과다에 의

3) John Guidubaldi and Clminshaw. 김 정인 외 1명 역 '이혼이 자녀의 건강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 제131호. 1985. 58면.

4) 서 정제, '외상처치' 학교보건 12호 40면.

5) 서 정제, '외상처치' 전계서 42-43면.

〈표-1〉 complaint의 종류에 따른 아동수 구분

	외상	두통	감기	치통	복통	식체	뇌빈혈	설사	기타	계
아동수	257	76	61	3	139	15	8	4	12	575
비율(%)	45	13	11		24					100

〈표-2〉 외상의 종류와 아동수

외상	찰과상	자상	창상	꼴절	탈골	화상	타박상	비출혈	교상	strain	sprain	가시박힘	기타	계
아동수	98	13	62	5	2	15	12	20	9	3	10	5	7	257

해 자주 무시되어 오는 과제, 즉 영양적인 식사, 일정한 취침 시간과 식사 시간, 그리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의 좋은 건강 습관을 유지하도록 할 수 없으며³⁾ 질병 발생 시 조기에 의료 봉사를 받을 수 없는 것 등이 아동의 건강생활에 문제가 된다.

실제로 과과가정의 아이들 중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psychosomatic syndrome으로 양호실을 찾는 아동도 가끔 볼 수 있다.

한 자녀 갖기 운동, 가족 계획 등으로 인하여 가정의 자녀수가 줄어드는 관계로 부모들의 과잉 보호로 인해 자립심이 결핍되고,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외상도 잘 입고 학급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함으로써 사회적·정서적으로 학교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수도 있다.

IV. Complaint에 대한 細部的 考察 및 對策

1. 外傷

외상의 경우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벼운 찰고상이 대부분이며(38%), 그 외에는 창상, 화상, 코피 등이 많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상처에 대한 소득은 수도물, 2~3% 옥도정기, 2% 과산화수소, 0.1% 과망간산칼륨, 2%

머큐륨, 3% 봉산수베타딘액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⁴⁾ 본교에서는 찰과상의 경우 흙 먼지를 씻은 후 과산화수소로 닦아내고, 다시 머큐륨을 발라준다.

소량의 출혈이나 woozing이 있는 경우 지혈시키고 나라민산 가루를 뿌려 지혈 및 상처 부위 건조와 아울러 감염 방지 효과를 나타낸다.

자상의 경우는 송곳, 못 등에 찔리거나 연필, 사프심 등으로 장난하다가 찔리는 경우이며, 마루바닥이나 목재, 책·걸상에 또는 문틈 등에서 나무가시에 찔려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알콜로 주변을 소독한 후 가시를 빼어주고 소독 Dressing 한다.

창상의 경우는 칼에 베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독 후 일회용 반창고를 붙여두면 쉽게 치유된다. 상처 부위가 깊고 넓어서 흉터가 생길 가능성 이 있는 경우는 인근 병원에 데리고 가서 suture해 주어야 한다.

꼴절이나 탈골의 경우는 부목으로 고정시킨 후 병원으로 이송한다.

척추나 대퇴골과 같이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이 골절을 입었을 때 부주의하게 환자를 다름으로써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불구의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목 처치 및 외부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 외에는 불필요하게 환자를 다루지 말 것이며, 서둘러 병원으로 옮기려 하는 것도 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⁵⁾ 학교에서의 골절은 주로 전박골 및 경골과 발목 골절이다.

화상의 경우는 주로 과학실에서 실험 도중 일콜 램프의 사용 부주의로 오는데, 이런 경우는 대개 작은 부위 1, 2도 화상이며, 찬물에 식힌 후 소독하고

바셀린 연고를 바르고 화상의 정도에 따라 Dressing에 준다.

화학제에 의한 화상은 대부분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낸 후 의사에게 보인다.

전기에 의한 화상으로 전류가 들어간 입구와 나간 부위에 조직의 손상을 가져온다. 대부분 심장마비 및 호흡마비가 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치가 급선무이며, 인공호흡과 밀폐식 흥곽 맷사지를 시행한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최소한 4시간 정도는 계속해 주어야 한다.⁶⁾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 정도의 심한 화상을 거의 볼 수 없다.

타박상, sprain의 경우는 옥도정기(또는 안티프라민)를 빌라주고, 상처 부위를 올리고 안정을 취하게 한다. strain의 경우 고정시켜 일단 병원을 방문도록 한다.

비출혈의 경우 부딪히거나 넘어진 경우이며, 출혈 부위의 비익과 앞이마를 찬물수건으로 대고 지압으로서 비익 상방인 코의 축부를 비중격쪽으로 압박하면서 눌러주면 보통은 몇분 안에 치료된다.

자연 치혈이 되지 않는 비출혈의 경우 냉수로 비세척을 하며, 지압으로 전비공 작하부의 윗입술을 압박해서 비중격으로 유입되는 혈행을 막아주고 비배주, 후경부에 얼음찜질을 한다. 중증비출혈의 경우 위의 응급 처치를 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⁷⁾

2. 頭 通

고열로 인한 두통의 경우가 대부분이며, 감기인지 어떤 특정한 질병 때문인지를 구별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하면 해열제를 복용시키며, 미지근한 물에 75% 알콜을 2:1의 비율로 타서 '큰 정맥이 지나가는 부위를 따라 마사지하여 줄으로써 열이 내리도록 한 후 아동의 상태에 따라 서신(가정통신문)을 동봉하여 집으로 보낸다.

〈표-3〉 두통의 원인별 구분

원인	발열	빈혈	정서적문제	원인모름	계
아동수	44	18	11	3	76

빈혈의 경우 18명이 나왔는데,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보면 빈혈이 있는 아동이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되리라 추측된다.

성장기의 어린이는 철분 흡수에 필요한 VC와 함께 육류, 가금류, 생선, 계란 등의 양질의 단백질뿐 아니라 전포도 등의 말린 과실류, 푸른 채소 등의 섭취가 필요하다.⁸⁾ 그러나, 저소득층의 어려운 농촌에서는 부모의 교육 부족 및 의료 시설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어린이의 성장 및 발달에 따른 철분의 증가된 생리적 필요량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빈혈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빈혈이나 기타 규명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두통의 경우 반듯이 눕힌 상태에서 발만 약간 높여 주고, 양호실에서 안정시키며, 관찰한 후 서신 동봉하여 상태에 따라 집으로 보낸다. 반복되는 원인 불명의 두통인 경우 학부모 면담을 통하여 정밀검사를 받아보도록 한다.

정서문제로 인한 두통의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한두 번에 일 수 없으며, 여러 번의 같은 두통으로 인한 양호실 방문이 있을 경우 가정환경, 성격, 상담 등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주로 사랑의 결핍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 사랑이 담긴 상담을 통해서 만 치유될 수 있다.

또한, 지나친 부모의 과잉보호로 학교생활 적응 곤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소아 정신과적 문제의 하나인 학교 공포증의 증상으로 복통과 아울러 두통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때에는 정신치료 및 놀이치료로서 신체 증상이 소실되도록 하는데⁹⁾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권한다.

6) 서 정체, '외상처치' 전계서 41면.

7) 하 영수 전계서 359~360면.

8) 이 기열, '아동영양과 영양불량' 학교보건 14호 1985. 8면.

9) 김 경희, '국민학교와 정신보건' 학교보건 제12호 1983, 15면.

3. 감 기

여기서는 주로 감기로 병원에 다니거나 약국에서 약을 지어먹고 있는 상태에서 양호실을 방문한 아동들이며, 감기의 경우는 빠른 회복을 위한 안정과 아울러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심한 하루 이틀 정도는 집에서 쉬는 것이 좋으나¹⁰⁾ ‘학교 결석’에 대한 학부모와 아동의 강박관념 때문에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등교하는 아동이 대부분이므로 양호실에서 안정을 취한 후 보낸다.

4. 齒 痛

치통의 경우는 그 원인이 대부분 충치 때문이며, 간혹 갈아야 할 젖니가 흔들려서 빼주기를 원하는 아동이 있으며, 이것은 쉽게 빠지고 크게 통통이나 출혈 없이 지낼 수 있다.

5. 腹 痛

아동에 있어서 복통은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표-4〉 복통의 원인 및 양상에 따른 구분

복통의 유형	식전	식후	운동 후	식중 독	변비	맹장 염	기타	제
인원 수	34	56	18	4	26	2	3	143

〈표-4〉에서는 복통의 원인 및 증상에 따라 아동들의 호소를 중심으로 나누어 보았다.

아동들은 배아픈 것과 배고픈 것의 구별이 잘 안 되며, 실제 배가 고플 경우는 복통(속쓰림 또는 배가 뒤틀린다는 식의)이 있을 수도 있다.

아침을 깊고 학교에 와서 점심시간쯤 되면 복통을 호소하며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때는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든가 우유를 마시게 함으로써 복통을 완화시킬 수 있다.

식후에 오는 복통으로는 음식물이 체했을 경우가 많으며, 이 때에는 오심,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토가 있으면 토하게 하고, 소화제를 복용시킨 후 안정시키면 웬만큼 복통이 완화된다.

식후 갑자기 운동을 할 경우 복통이 오기도 하는데 공기 흡입으로 인한 복부 팽창이나 과대 연동운동으로 복통이 오는 경우 또는 긴장할 경우 tension으로 오는 경우는 반듯이 눕게 한 후 복부에 더운 물 주머니를 대어 주면 가스가 나오면서 복통이 해소되기도 한다.

변비로 인한 복통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더운 물 주머니를 약 20분간 댄 후 대변을 보도록 하면 대부분 용변 후 복통이 해소된다.

여름철에 주로 볼 수 있는 식중독으로 인한 복통의 경우 구토와 설사를 동반하며, 미열 또는 고열을 동반하게 되는데, 식중독균의 종류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고, 신경 증세를 동반하기도 하나 설사와 구토가 주 증세이다.¹¹⁾ 이때는 빨리 판단하여 병원에서 진찰·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맹장염으로 알려진 충수염의 경우도 빨리 판단하여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 충수염은 성인에 의해 발생률이 낮으나 유·소아에 있어 응급 복부 수술을 요하는 흔한 질환이다.

임상 증상으로는 상복부 또는 제와 주위에 통통을 호소하며, 차츰 우 하복부 통통으로 국한된다. 충수 주위 복부에 압통이 있으며, 흉식 호흡을 하고 하지를 굽혀 복부를 지지한다. 대부분 복통 전에 오심 구토를 일으키며,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현저하다(ileopyloric reflex).¹²⁾

기타 기생충에 의한 복통이나 위경련 등이 있으며, 정서적 문제로 정신과적 상담을 요하는 복통도 있다.

기생충에 의한 복통일 경우 공복인 이른 아침에 느긋하게 치오로는 군침, 즉 거위침과 함께 견딜만

10) Arnold Bloom, *Toohey's Medicine for Nurses*. Churchill Livingstone 1978. 156면.

11) 정희영, ‘식중독의 예방과 치료’ 학교보건 제14호 1985, 27면.

12) 하영수, 전계서 367면.

한 아픔이 배꼽 주위에서 시작하여 점점 아픔이 더 하면서 모든 배에 퍼지고, 급기야는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 오목가슴으로 치밀고 올라오면 배를 움켜잡고 약 20~30분간 허우적거리다가 풀리게 된다.

이를 위경련, 가슴앓이, 공복통, 속앓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회충에 의한 기계적·물리적 작용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일종의 알러지반응으로 알려진 슬츠데일반응(schultz-Dale reaction)이 중요한 원인이며, 장이 회충의 분배물, 즉 「항원에 영향되어 갑자기 긴축됨으로써 경련 상태로 빠져 쥐어짜듯한 혹은 쥐어틀듯한 아픔이 유발된다. 이것이 소위 횟배요¹³⁾ 이 복통이 시작될 때는 급성 전염병이나 식중독, 맹장염 등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6. 脑貧血 및 日射病

조회시 조금 오래 서 있거나 오래 달리기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하거나 실신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서늘한 곳에 눕혀 하지를 올려주고 심호흡을 시키며, 열이 있으면 석회주고 안정시키면 상태가 중하지 않을 경우 곧 깨어난다.

일사병의 경우 스스로 잘 적용하지 못하는 고열로 인한 것으로, 땀의 증발이 잘 안되는 뚜꺼운 옷이나 계속적인 운동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환자는 혼란된 상태에서 안절부절하게 되며, 이 따금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피부는 뜨겁고 건조하며, 체온은 41°C까지 올라가고, 맥박은 빠르고 약하다. 이 때는 효과적으로 몸을 식히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몸에 찬물을 뿌리는 방법이 있다.

심하면 생리적 식염수를 정맥주사하여 전해질 균형을 맞춘다.¹⁴⁾

그러나, 주사는 병원에서의 치료방법이며, 학교에서는 상태를 잘 관찰하고 판단하여 심할 경우 빨리 병원으로 옮긴다.

7. 其 他

기타 눈다래끼, 두드러기 등이 있으며, 동상 또한 몇 명 된다. 이들의 초기나 경한 경우 학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

눈다래끼의 경우 막 생기려고 할 때 소금물로 자주 씻어내면 그대로 대부분 지나가나, 이미 발전해서 농포를 형성한 경우는 완전히 끓듯록 두었다가 배농 후 소독하고 항생제를 하루 정도 먹게 한다.

두드러기의 경우 칼라민 로션을 발라주며, 심할 경우 항 알러지제제를 경구 투여한다.

동상은 꾸준한 치료를 요하는 것인데, 일단 발생한 경우를 보면 가정이 어렵거나 부모가 안계신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므로 사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

V. 結論 및 提言

양호실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complaint에 대해 성의껏 조사·분석하였으나 제한된 배경과 인원, 시간 등으로 인하여 더 충분한 연구가 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아동들의 complaint의 양상과 문제점을 알아봄으로써 그러한 동통의 감소와 치료, 더 나아가서는 질병 예방 및 보건교육의 참고 자료로서 중요하게 이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동들의 complaint의 대부분은 외상이며, 이는 학교생활교육을 통하여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며, 나머지 내과적 문제는 보건교육을 통해서 예방할 수도 있다. 또한, 일선 양호교사의 선에서 1차적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양호교사는 아동이 동통에 대한 complaint을 해올 때 이에 따르는 적절한 과학적이고 예술적이며 전인적인 간호를 행하여야 하겠으며, 자기 자신의 작은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13) 민 홍기, '횟배와 이미증' 전강소식 1984. 1, 기생충박멸협회, 26~27면.

14) Arnold Bloom. 전계서, 32~24면.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임무 또는 양호교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이리라.

혹여 양호교사의 미숙이나 실수로 인하여 아동에게 질병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치료 지연, 사고 발생 등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간호원이라면, 모두 오른손 들고 서약한 나이팅게일 서약문을 기억하면서 내게 맡겨진 어린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이 몸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보아야겠다. ♪

